

코오롱, 아웃도어에서 발암물질 검출

소비자모임, 아릴아민 기준치 20배 초과 ... DuPont 패소 이은 악재

코오롱 스포츠웨어에서 발암물질인 아릴아민(Aryl Amine)이 검출됐다.

소비자시민모임이 아웃도어의 안전·품질기준(KC)을 평가한 결과에 따르면, 코오롱의 액티브재킷 내피에서 검출된 아릴아민이 기준치의 약 20배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오롱인더스트리는 즉각 “소비자 피해사례가 발생한 것에 깊이 사과드린다”며 전량 리콜을 결정했다.

코오롱은 아웃도어제품 시장에서 K2, 노스페이스 등 국내외기업들과 1위를 두고 경쟁하고 있으며, 최근 매출이 급격히 신장하는 추세였기 때문에 충격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코오롱인더스트리 관계자는 “중국에서 생산하는 과정에서 염료에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구매 고객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코오롱은 최근 미국의 화학기업인 DuPont과의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서 패소해 손해배상금으로 9억1990만달러를 지급하라는 미국 법원의 판결이 내려진 바 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1/12/16>